

신한PWM,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신한PWM은 금융권 최초로 은행과 증권이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복합점포 모델이다. 전문적인 자산관리 교육을 받은 130여 명의 프라이빗뱅크들이 고객별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제공하는 입체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고객에게는 법인의 자금관리, 자금조달, 세무, 부동산, 회계까지 법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신한PWM은 고객의 니즈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은행과 증권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고객 별로 차별화된 자산관리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운영 중이다. 세분화된 사업모델로는 초부유층 기업가 고객을 대상으로 PB와 IB가 결합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PIB센터, 소수정예의 초고자산가 고객을 1대1로 밀착·집중 관리하는 Privilege센터, 고자산가 고객군을 관리하는 PWM센터 등이 있다.

PWM센터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교육을 받은 130여 명의 프라이빗뱅크(PB)들이 근무하며 고객별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PB-CIO(Chief Investment Officer)' 인종제도를 신설하여 PB들의 자산관리 직무역량을 기존자산관리 'Relationship Manager'의 역할에서 전문가적 역량을 강조한 '고객자산 투자 책임자(CIO)' 역할로 확대하고 이에 맞게 PB의 교육도 보다 전문적으로 고도화하였다.

고객중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신한PWM은 상담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고객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품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기 위해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종합적인 하우스뷰와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며 신한금융그룹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PWM전용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자산관리 분야에서 남들보다 앞선 특화시장 발굴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한PWM은 2019년 12월 신한PWM PIB센터를 서울 강남에 오픈하였다. PIB란 PB(Private Banking)와 IB(Investment Banking)가 결합된 용어로 고자산 기업가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기업금융, IB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모델이다. PIB센터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문가, 상품 매니저, 법인 컨설턴트, 부동산 전문가, 회계사로 구성된 ICC(투자컨설팅센터)가 PB팀장과 한 팀이 되어 개인, 가족, 기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PWM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모델인 PIB센터를 통해 WM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주)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저희 신한은행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프라이빗뱅크 부문 1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랫동안 우수한 서비스로 인정해주신 만큼, 더 분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고객과 사회에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한PWM은 2011년 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금융 복합점포 모델로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 한 분 한 분의 니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고객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